'양림동 근대 역사 건축물 100년 만에 문을 열다'와 마을장터 행사 등이 열리게 될 최승효 가옥〈왼쪽〉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광주시·남구청과 마을주민 등이 진행하는 행사는 오는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양림동 100년의 흔적들, 주말엔 문화공간

오웬기념각·우일선 사택·최승효 가옥 등 7곳 개방

12~10월까지 임권택 특별전·음악회…마을장터도

광주 근대역사의 자취를 간직한 양림동 '100년 건물'들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개방됐던 최승효·이장우 가옥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9일 "광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서 '양림동 근대 역사 건축물 100년 만에 문을 열다'와 마을장터 행사를 오는 1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은 오웬기념각, 우일선 사택, 수피아홀, 원스브로우홀 등 건립 100년 역사를 헤아리는 선교유적과 최승효·이장우 가옥 등 모두 7곳이다.

이들 건물은 양림동이 100년 전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공간이라는 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오웬기념각은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 의사(목사)를 기념해 1914년에 지은 건물이다. 1919년 3·1만세운동을 고취하는 설교가 이뤄진 곳이다. 호남신학대학에 있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1920년대 미국인 선교사 우일선이 지은 벽돌집으로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다.

고택인 이장우 가옥은 1899년 정병호가 지은 상류층 가옥이고 최승효 가옥은 독립운동가 최상현이 1920년에 건축한 한옥이다.

'양림동 근대 역사…'행사는 이들 건물을 순회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모두 9차례 진행된다. 클래색 음악회, 시민극단 연극공연, 영화관람, 대중가수 초청 음악회, 인문학 축제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행사의 문을 여는 '양림의 소리' 공연은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오웬기념각에서 양림동 주민들이 진행하는 행사로 펼쳐진다.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시화전을 비롯해 미술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과 공예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한국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을 기리는 특별전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오웬기념각에서 열린다. 임 감독이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인생과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는 행사와 맞물려 최승효·이장우 가옥을 상시개방키로 하고 소유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장우 가옥의 경우 관람객을 맞이하고 시설을 관리할 관리자를 별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효성, 전투영웅 기념공원 조성키로

파주 육군 1군단과 협약…DMZ 지뢰부상 장병 전공 기려

지난달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등 육군 1군단 수색대대 장병의 전공(戰功)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만들어진다.

효성은 9일 파주 육군 1군단에서 이상운 부회장과 김용우 군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영웅 기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군단은 이달 말까지 파주통일공원에 DMZ 수색작전 모습을 담은 조형물과 함께 작전에 참여한 장병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효성은 조성비용 2억원 전액을 후원하기로 했다. 기념공원은 총 8명의 수색대대 대원들이 DMZ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군과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통일의 밑거름을 조성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효성은 2010년 1군단과 1사1병영 후원 협약을 맺었다. 또 6·25 참전용사들의 노후한 주택의 보수를 지원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후원하고 국립서울현충원 등과 1사1묘역 가꾸기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호국보훈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9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1군단에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조원용 전무(왼쪽에서 첫번째), 육군 1군단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영웅 기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효성 제공〉

이산가족 상봉후보자 500명 추첨

정부, 금강산 면회소 시설점검차 조만간 방북

대한적십자사(한적)는 9일 5층 강당에서 이산가족 신청자들 중 이달 8일까지 등록된 생존자 6만 6천여 명에 대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해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뽑았다. 이는 최종 선정 인원 100명의 5배수에 달한다. 〈관련기사 6면〉

앞서 한적은 '2015년 추석 계기 이산가족 대면상봉 대상자 선정 인선위원회'를 열어 상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인선위가 결정한 선정 기준에 따르면 연령별 분포 비율을 고려하되 9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50%로 높여 지난해(35%)보다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또 가족 관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부부, 부자 등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3촌 이상의 가족관계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둬 뽑기로 했다.

2차 후보자 250명은 본인의 상봉 의사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반영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명은 국군포로 등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자 100명은 북측의 생사확인 명단을 토대로 가족관계에 따라 직계가족이 우선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남북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같은 달 8일에 각각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 시설점검 인력이 조만간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북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 "현대아산측과 관련 협의를 하는 중인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전남 영암 외국인주민 비율 11%

전국 시군구 30곳 5% 초과

우리 사회의 다문화·다인종화가 가속화하면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이 11%를 기록했다.

9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174만1910명을 기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이는 2006년 54만명과 비교해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주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90일 넘는 국적미취득자,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시군구는 30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외국인주민 비율이 17.5%에 달해 주민 10명 중 2명꼴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 금천구(13.8%)·구로구(12.5%), 경기도 안산시(11.8%)·시흥시(11.5%), 전남 영암군(11.0%), 충북 음성군(10.6%) 등 총 7곳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0곳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5%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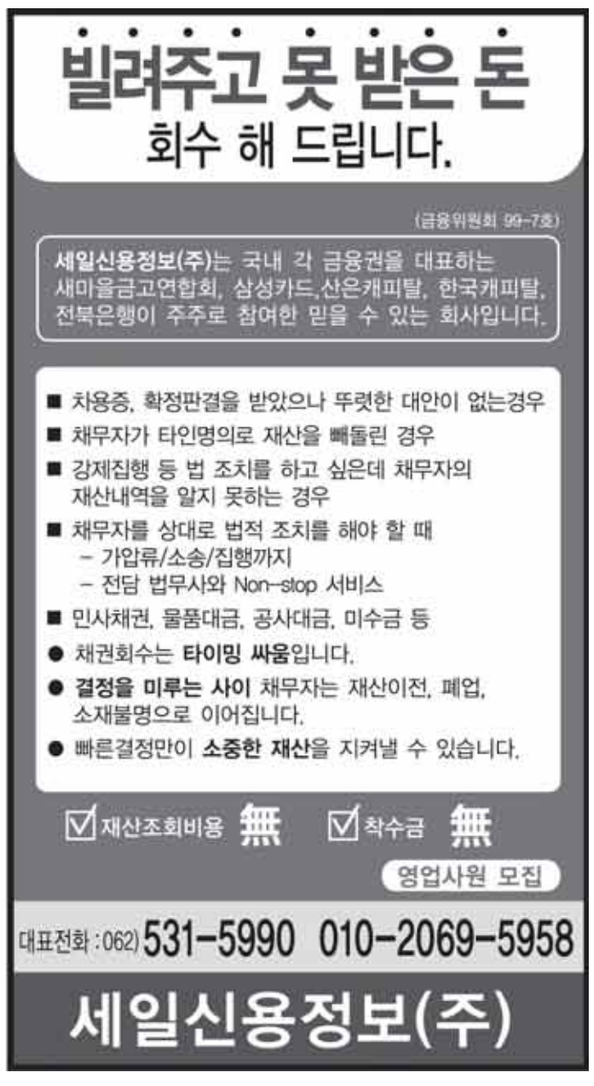
외국인주민 수가 1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54곳이다. 경기도 안산시(8만3648명)·수원시(5만5981명), 서울 영등포구(6만6952명)·구로구(5만3191명) 등 4곳은 5만명을 웃돌았다. 2만명 이상~5만명 미만인 시군구도 경기도 시흥시(4만 5471명)·화성시(4만1267명) 등 15곳에 달했다.

/연합뉴스

한국 내-외국인 근로자 임금격차 1.55배…OECD 1위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0.93배)와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연합뉴스